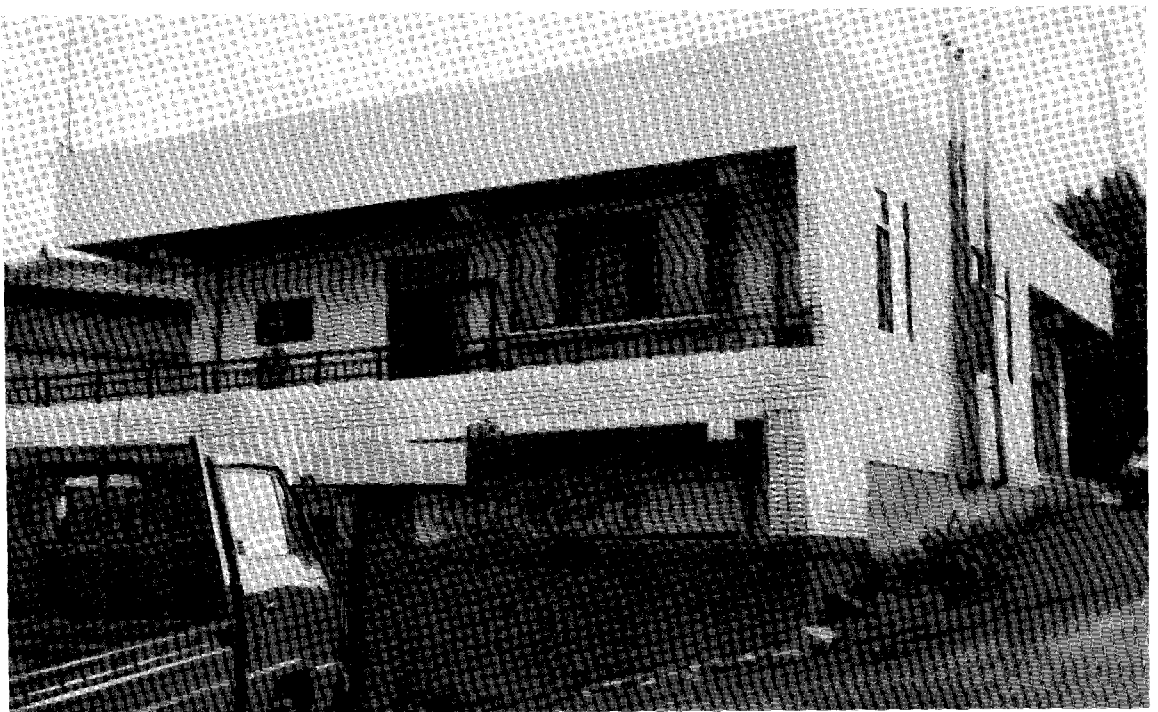


이종대씨를 찾아서—

천안 大成食品

14년전 두채업에 손을 댈 당시에는 조그마한 창고 속에서 콩 몇뿔박으로 시작, 남의 거래처에 한밤중에 콩나물을 몰래 갖다놓고 팔아주면 좋고 못팔아 줘도 그만이라는 방식으로 판로를 개척하였으나, 지금은 어떠한가? 너무나도 당당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신규업자가 자신의 거래처를 침해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윤리의 기준이 변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세상 인심이 그만큼 각박해졌기 때문일까?
아무튼 천안지역 두채업계는 총비상이 걸려있고 친목회장 이종대씨는 신규업자의 출현으로 고심을 하고 있으니—



집 중 호우로 영산강이 범람하여 부근일대의 가옥 및 농경지가 침수되고 수만여명의 이재민 발생과 함께 수백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태풍 「쥬디」호가 일본 「큐슈」지방을 맹타하고 우리나라를 향하여 북상하고 있다는 기상특보와 접하게 된다.

다행이 태풍 「쥬디」는 전남 고흥지방에 상륙한 후 그 위력만 잠시 과시한 후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태풍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산들바람으로 대한반도를 통과하게 되지만, 한때 이 태풍「쥬디」의 영양권에 들어있다 하여 전국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 적이 있었다.

마치 평온하던 개미굴에 예외없던 난적이 침입하여 개미들이 총동원하여 그 적의 퇴치에 온 개미굴을 들쭉서어 놓은 것을 연상케도 한다.

천안지역에 두채업자라고 하면 통털어 봐야 12명, 종전에 친목단체가 있었으나 특별한 사업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친목에 국한된 활동만을 하여왔으나 약3년전 그 친목회조직을 재정비하여 회장단도 다시 선출하고 상호 기술이나 경영정보의 교환, 유통질서의 확립등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친목을 도모하여 훈훈한 형제애

같은 분위기속에서 오손도손 두채업을 영위해 보자는 목적하에 구성된 친목회가 타지역 못지않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기금도 3천여만원이나 조성되게 되었다.

이렇게 천안 두채업자들이 뚝뚝 뭉쳐있으니 자연 타 관련업계에서도 경시할 수 없게 되고, 천안 중앙시장내의 콩나물 판매업소인 일반식품업자 단체에서는 콩값에 따라 콩나물가격 연동제를 제안하여 현재 이 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등 그 위상이 신장되는 한편, 수요와 공급이 안정 되어있기 때문에 평화공존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 외지에서 두채업을 하던 사람이 천안에 이주하여 콩나물공장을 차리고 자신의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콩나물의 출하가격을 거의 절반으로 내려 판매하고 있으며 거래처마다 몇십만원씩의 사례금도로 뿌린다는 정보가 나돌고 있다.

현재 이의 수습을 위하여 천안지역 두채업계는 외지의 난적을 무찌르기 위한 개미굴이 되었고 친목회원 모두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고 있다.

외 지의 침입자(?)는 대담하게도 천안두채친목 회장

인 이종대씨(49歲)를 그 첫번째 희생물로 표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신규업자 K모씨는 외지에서도 다년간 두채업을 운영하던 자로 경험도 풍부하고 두채업계의 통뻥도 빠사한 자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친목회장의 거래처부터 묵사발을 만들어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회장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부치면 친목회와의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에서 타협하려는 작전(?)인지, 아무튼 현재로 보아선 천안지역 두채업계를 모두 집어삼킬 것만같은 기세이다.

12명의 업자 모두가 합심하여 이의 퇴치를 위하여 백의종군 한다면 신규업자 한사람 째은 넉근히 해치울 것도 같지만 과연 12명 모두 얼마나 단합된 힘을 과시할지가 의심스럽다. 아직 자신의 거래처에 손상이 없는 일부회원이 다칠(?)가봐 얼마나 동조할런지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콩나물을 공급받고 있던 거래처들이 신규업자가 출하하고 있는 가격이 단순히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투매가격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가격면에서 터무니 없는 폭

리를 취해 자신들에게 심한 손해를 입혀왔다는 배반의식에만 사로잡혀 도통 대화의 기회를 주지 않는것이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이 종대씨가 두채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것은 14년 전, 공직에 몸을담고 있다가 건강때문에 퇴직을 한 후 공여지책으로 시작한 것이 콩나물 재배일!

그러나 콩나물은 그 재배에도 힘들지만 판매에도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신규업자라면 자신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타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자신은 14년전 두채업에 처음 손을 댔 당시 조그마한 창고하나 지어놓고 하루 몇뿔박의 콩으로 콩나물을 재배하여 그나마 거래처의 확보를 위하여 무척이나 고심을 했다. 기존업자가 두려워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당시에는 야간통행금지가 있을 때였음)식품점에 콩나물을 몰래 놓고 오면서, 팔아주면 좋고 못팔아줘도 할 수 없다는 각오아래 거래처 확보작전(?)을 전개 하였다 한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물론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옛날

자신의 그것과는 너무나 당돌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는데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윤리의 기준이 변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세상 인심이 그만큼 각박해졌기 때문일까?

“너 아니면 나”라는 경쟁의식이 그저 야속할 뿐이다. 남의 거래처에 자신의 콩나물을 몰래 갖다 놓으면서 혹시 기존업자에게 들켜 곤욕이나 치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만큼이나 현실성이 없는 방식인 것이다. 혹 누구에게라도 이런말을 하고 그의 행동을 만류한다면, 내가 나먹고 살기위해 이것하는데 네가 무슨권리로 남의 생

존권에 시비를 하느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 그렇다고 기존 거래처에는 나만 거래하라는 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세상에 자유경쟁체제로 똑같은 콩나물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공급한다면 소비자중에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히려 신규업자가 판매하는 가격이 투매가격인줄 알면서 중전 정상가격으로 공급하던 자신에게는 콩나물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아왔다고 몰아부칠 정도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거래처 끊기고, 육언어 먹고, 그리고 기분나쁘고...

여러가지 손해가 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자신은 콩나물 배달이나 수금등 주로 거래처의 관리를 위해 밖에 있는 시간이 많기때문, 콩나물의 재배등 안에서 하는 일은 거의 부인의 손에 의존하고 있다.

언젠가는 두채업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막연한 생각 뿐이었지 그의 실현을 목표로 구체적인 구상한번 해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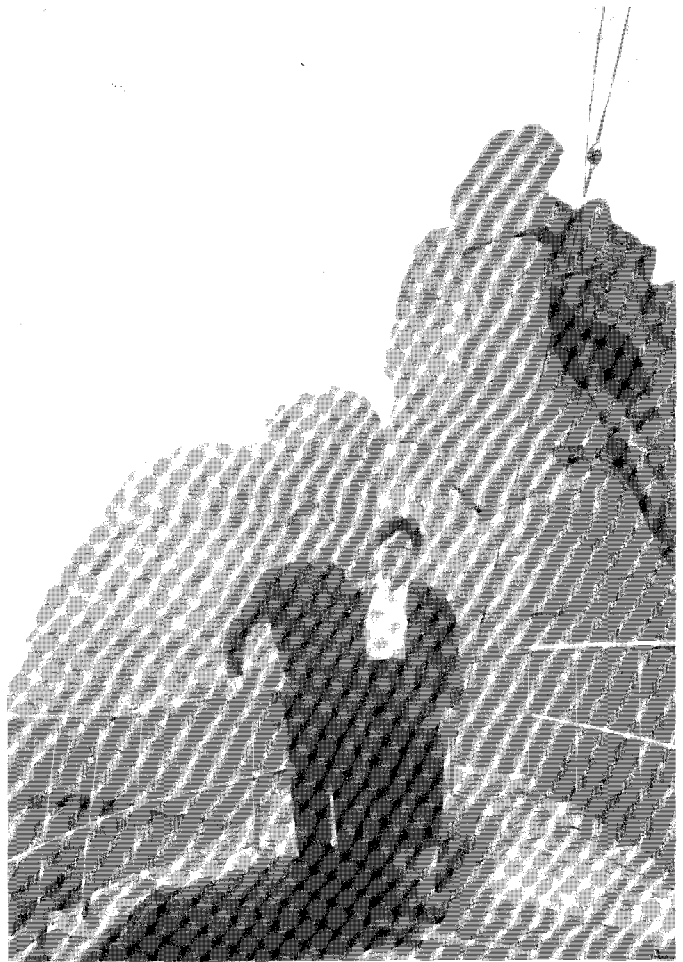
인건비 몇푼이라도 아끼려고 종업원도 두지 못하고 부인은 집에서 주로 콩나물을 재배하는 데에 일손을 빼앗기고 자신은 콩나물의 배달이나 수금 등의 거래처 관리를 위해 주로 밖에서 힘써왔지 않은가?

지금은 그래도 자동물 공급기라도 설치하여 시간에 덜 쫓기지만 그전에는 잠한숨 제대로 자본적이 있던가?

고우디 고왔던 아내의 얼굴에는 주름만 늘어나고 자신의 손바닥에는 굳은살이 돌아나 볼품없이만 되어가고 있다.

그저 유일한 낙이라고는 4남매가 무사히 성장하고 있고, 올봄에는 약250여평의 대지위에 주택과 공장을 겸한 자신의 보금자리를 새로 지어놓고 파뿌리가 될때까지 두 부부가 백년해로를 구상하는 것이 그에게는 제일 큰 즐거움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그가 두채업에 손을 댈 당시 어느 독지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듯이 앞으로 자신도 곤경에 처해있는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한번 해보고도 싶은데……

세상만사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대조적이 아닐



그는 두채업을 천직으로 삼고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될때까지 두부부가 백년해로 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다. 사진은 작년 흉도 나들이 때에 부인과 같이……

수 없다.

콩나물이 계속 썩는것을 안타깝게 본 동료 두채업자가 이름모르는 약을 갖다 주면서 그것을 사용하면 콩나물이 썩지 않는다 하여 물에 희석까지 하였으나 물 색깔이 뽀얗게 변하

는 것을 보고 도저히 양심에서 허락치 않아 그대로 버렸던 일이 있지 않은가?

과연 지금 자신의 거래처를 침해하고 있는 신규업자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까? 만약 자신의 절반만큼이라도 양심이

라는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몰아부치지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저 모질고 악하지 못한 자신의 심성을 원망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비도덕적인 행동까지 하면서 이렇게 철저히 타인을 괴롭힐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면 한편으로 그 신규업자가 가엾기만 하고 그런대로 이해할 것만 같은 심정이다.

인 구는 차츰 늘어나고 있으나 소득이 향상되고 식생활이 고급화 되면서 콩나물의 수요는 반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언젠가는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의 실현은 언제 이루어질런지 이종대씨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가 현시점에 이르러 구상중에 있는것은 엉뚱하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천안 두채업자친목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콩나물의 합동재배장을 건설해보고자 하는것이 그의 유일한 꿈인 것이다. 금년봄에 재배장 부지를 물색해보기도 하였으나 일부 회원들이 아직은 시기상조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하는 의견에 밀려 그 계획을 연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악조건 속에서 오늘을 이룩한 것은 끈기있는

노력과 무엇이든지 끝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의 성격 때문에 밤잠도 못자고 끼니를 걸러가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천안지역에 콩나물 공동재배장의 건립은 결코 멀지 않았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그리고 현재 신규업자에게 침식당하고 있는 자신의 자존심을 전형적인 충청도 양반의 기질때문에 좀처럼 내색하지는 못하지만 우직스러운 정도의 그의 뜻심 앞에는 결코 신규업자도 고개를 숙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시하는 것만 같다.

이제 신규업자의 투매행위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다시 종전과 같은 평온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이종대씨도 그 신규업자의 심정을 이해 해주게 될 것이고 너그럽게 그를 포용할 것이지만 그 자가 천안지역 두채업계

에 일구어는 흠탕물은 상당한 기일이 지나야 가라앉게 되고, 그의 행동으로 인한 동료업자의 피해는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심리적인 갈등도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낯설고 물선 객지땅, 각박한 상황속에서 두채업을 시작하여 뿌리를 내리기까지에는 과도기적인 혼란과 시련을 겪어야 되겠지만, 그의 과잉적 행동에 따른 전체 두채업계에 오는 손실과 여파는 의외로 크다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전체 두채업자의 불이익이자 곧 자신의 손실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아무튼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과격한 행동이 천안지역 두채업계에 표출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속히 평온이 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